교회학교 학생,
절반 정도만 복음에 대한 확신 있다!

가족 종교화 심화 현상, 출산율 감소 등 다음세대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목회데이터연구소와 (사)꿈이있는미래가 함께 다음세대 트렌드를 조망하는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거의 1년간 기획·진행했다.

그 결과 최근 출간된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2026.05.)」은 다음세대와 관련된 학생, 부모, 교사, 사역자 등 7개 집단(총 3,308명)을 다면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광범위한 조사물이다. 아마도 다음세대 관련 집단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다음세대 전문가 10명이 주제별 데이터를 근거로 지필한 국내 유일한 책일 것이다.

이번 〈넘버즈 346호〉에서는 세부 주제(10개)를 다루기 앞서, 현재 다음세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다음세대 사역 종합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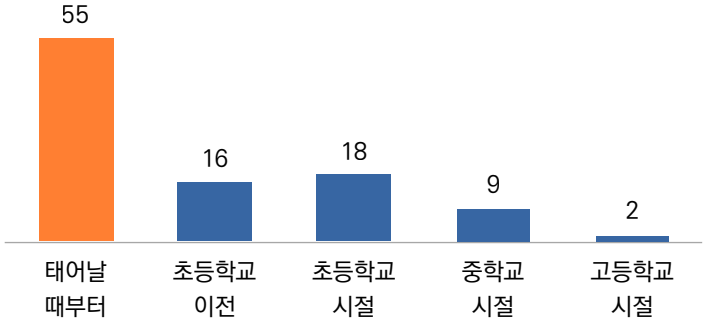
구분	내 용				
	일반 학생	학부모	담임목사	사역자	교사
조사 대상	만 14세~19세 개신교인 학생 (교회 출석 학생)	만 14~19세 자녀를 둔 개신교인 부모 (교회 출석자)	교회학교 부서가 있는 한국교회 담임목사	한국교회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 (사역자)	한국교회 교회학교 담당 교사
표본 규모	총 500명 (유효표본)	총 600명 (유효표본)	총 500명 (유효표본)	총 300명 (유효표본)	총 435명 (유효표본)
표본 추출	지역/성/학급별 비례할당 추출 (자녀기준)* 비례할당 추출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25년 교육통계연보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추출함.		편의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4.4%p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4.0%p	-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온라인 조사(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발송)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6년 01월 22일~02월 06일			2026년 01월 22일~02월 02일	2026년 01월 19일~02월 28일
조사 의뢰 기관	(사)꿈이 있는 미래(꿈미) /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다음세대 신앙]

교회학교 학생, 절반 이상(55%)은 모태신앙!

- 교회 출석 중고생에게 교회 출석을 언제부터 했는지 물은 결과, '태어날 때부터'가 55%로 가장 많았다. 교회학교 중고생 절반 이상은 모태신앙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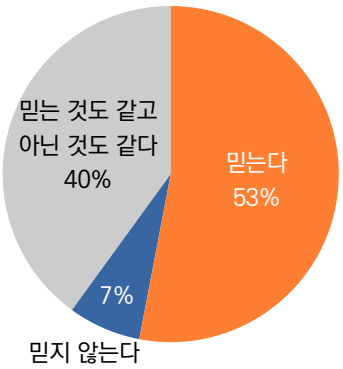
[그림] 교회 출석 시작 시기 (교회 출석 중고생,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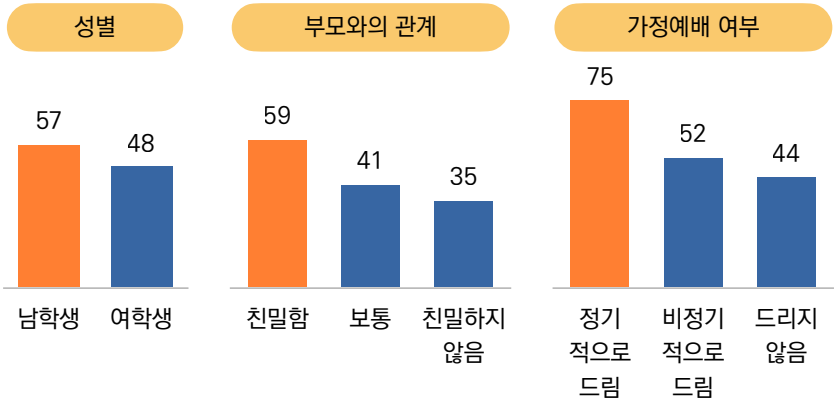
교회학교 학생, 절반 정도만 복음에 대한 확신 있다!

- 기독교 복음에 대한 확신 여부를 물은 결과, 교회학교 학생 절반 정도(53%)만이 확신이 있다(믿는다)고 응답했다.
- '믿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로는 남학생(57%)이 여학생(48%)보다 높았다. 또, 부모와 친밀한 관계이거나(59%),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경우(75%)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기독교 복음에 대한 확신 여부 (교회 출석 중고생, N=500)



[그림] 기독교 복음에 대한 확신 있다(믿는다) 비율 (교회 출석 중고생,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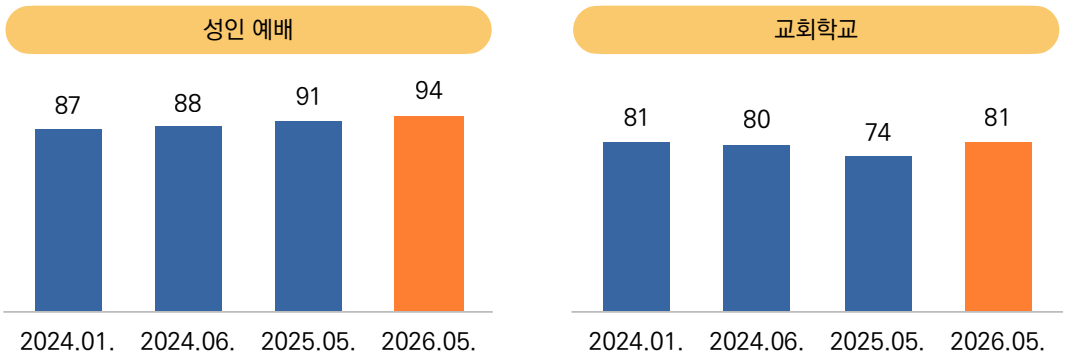


02 [다음세대 예배/회복도]

코로나 이후 다음세대 예배 회복도, 성인과 비교해 크게 낮아!

- 코로나 이전(100%로 가정) 대비 성인 예배와 교회학교 예배 참석률을 살펴본 결과, 성인 예배는 2024년 80% 후반대에서 2026년 5월 94%까지 꾸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교회학교는 2024년 1월 81%, 2026년 5월 81%로 정체상태에 있으며, 성인 예배 대비 회복률이 크게 낮았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장 예배 참석률 (담임목사, 평균,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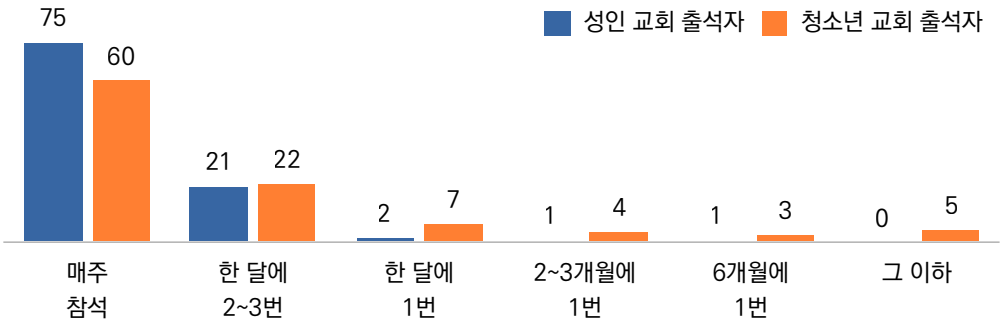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7', 2026.05.(전국 교회 담임목사 500명, 모바일 조사, 지앤컴리서치, 2026.05)

매주 주일 예배 출석률, 청소년이 성인보다 크게 낮아!

- 주일 예배 출석 빈도를 성인과 청소년(중고생)을 비교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교회 출석률이 성인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매주 참석률'을 보면 성인 교회 출석자는 75%인데 반해, 청소년은 60%로 15%p나 낮은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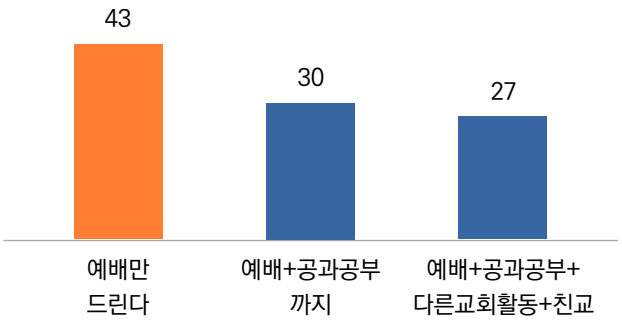
[그림] 주일 예배 출석 빈도 (성인 vs 청소년, %)



교회학교 학생 43%, 예배만 드리고 간다!

- 교회 참여 형태를 학생들에게 물었다. '예배만 드린다'가 4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예배+공과공부까지' 30%, '예배+공과공부+다른 교회활동+친교' 27%로 응답했다.
- 최소한의 교회 활동인 '예배'만 참여하고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교회 참여 형태 (교회 출석 중고생,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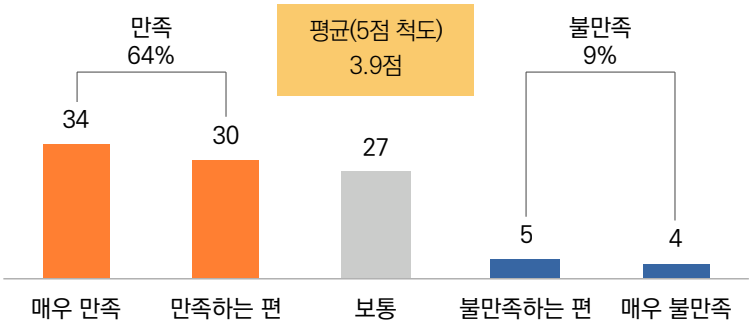


03 [교회 만족도]

교회 출석 중고생 3명 중 2명 가까이, 전반적 교회 생활 만족!

- 전반적인 교회 만족도를 교회 출석 중고생에게 물은 결과, 만족(매우+약간) 64%로, 3명 중 2명 가까이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점 만점에 3.9점, 즉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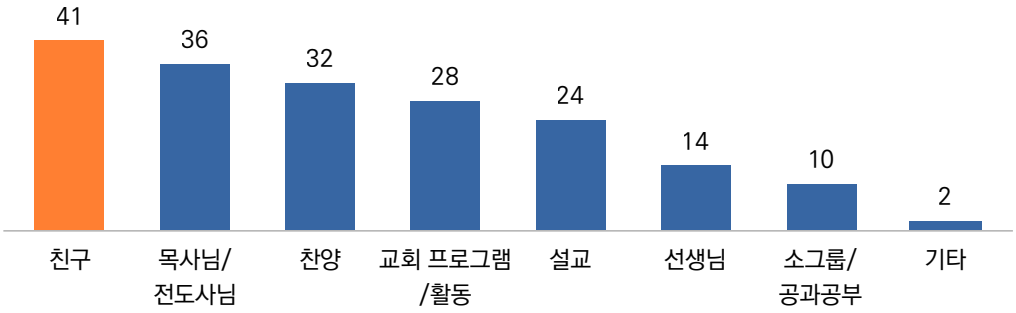
[그림] 전반적 교회 만족도 (교회 출석 중고생, N=500, %)



교회 만족 이유 top3, 친구·교역자·찬양!

- 교회에 만족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만족 이유를 물은 결과(1+2순위), '친구'(41%), '목사님/전도사님'(36%), '찬양'(32%)이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친구' 요인이 청소년 사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데이터이다.
- 반면 '교사'를 꼽은 비율은 14%에 그쳐, 교사 영향력이 학생들에게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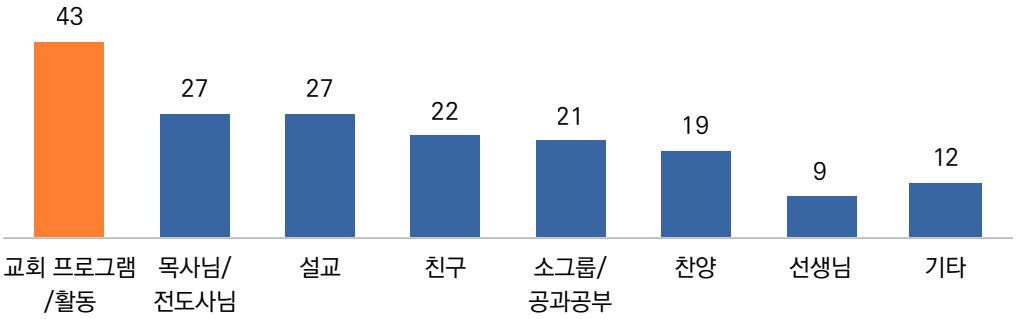
[그림] 교회 만족 이유 (교회 만족 중고생, 1+2순위, N=319, %)



교회 불만족 이유, 교회 프로그램/활동!

- 교회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교회 프로그램/활동'(43%)을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목사님/전도사님'(27%), '설교'(27%) 등의 순이었다.
- 학생들이 보다 흥미를 느끼고 집중할 수 있는 교회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사역자' 요인이다. 사역자(목사님/전도사님)는 만족 이유에서도 2위, 불만족 이유에서도 2위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 사역에서 '사역자' 요인이 그만큼 절대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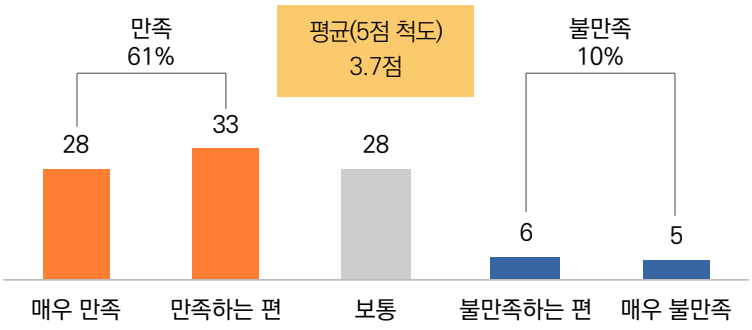
[그림] 교회 불만족 이유 (교회 불만족하는 중고생, 1+2순위, N=44, %)



교회학교 학생들의 교사 만족도, 교회 만족도보다는 다소 낮아!

- 교회학교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교회학교 학생 61%는 '만족(매우+약간)'한다고 응답했고, '불만족'은 10%에 그쳤다.
- 다만 앞서 언급한 '교회 전반적 만족도'(64%)보다는 '교사 만족도'(61%)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그림] 교사 만족도 (교회 출석 중고생,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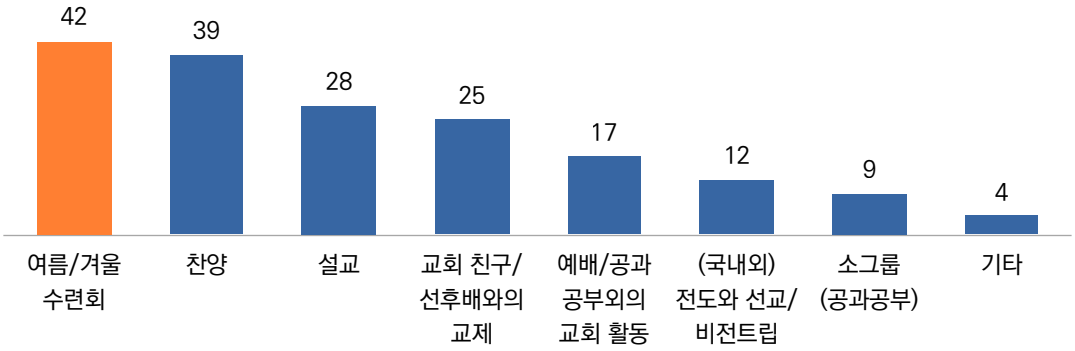


04 [신앙 성장 요인]

신앙 성장 촉진 요인, 수련회/찬양!

- 교회학교 중고생을 대상으로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 요인을 물은 결과, '여름/겨울 수련회'(42%)와 '찬양'(39%)을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설교'(28%), '교회 친구/선후배와의 교제'(25%) 등의 순이었다.
- 청소년들의 신앙적 자극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수련회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찬양 사역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초부터 자녀의 수련회 참석을 위해 부모를 설득하는 작업도 매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신앙 성장 촉진 요인 (교회 출석 중고생, 1+2순위, N=500, %)



넘버즈 인사이트

이번호 요약

1. 교회학교 학생, 절반 정도만 복음에 대한 확신 있다!

기독교 복음에 대한 확신 여부를 물은 결과, 교회학교 중고생 절반 정도(53%)만이 확신이 있다고 응답했다.

2. 교회 만족 이유 top3, 친구·교역자·찬양!

교회에 만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 이유를 물은 결과(1+2순위), 친구(41%), 목사님/전도사님(36%), 찬양(32%)이 각각 1~3위로 상위권에 랭크됐다.

3. 신앙 성장 촉진 요인, 수련회/찬양!

신앙 성장에 도움 요인을 교회학교 중고생에게 물은 결과, '여름/겨울 수련회'(42%)와 '찬양'(39%)을 가장 높게 꼽았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신앙을 심는 부모 코칭 30일 (두란노서원, 신형섭 저)

관련 성경 구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목회 적용점

이번 다음세대 사역 종합지표는 한국교회 다음세대의 위기가 단지 인구 감소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내실과 교제·프로그램의 한계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교회학교 학생의 절반 정도(53%)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공과공부나 교제 없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비율이 43%에 달하는 상황은 다음세대 사역의 중심축을 단순 출석에서 '신앙의 내실화'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청소년들의 영적 확신을 세우는 데 전 교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조사에서 나타났듯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59%)나 정기적인 가정예배(75%)가 복음 확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회가 가정과 적극 연계하여 '가정예배 강화' 등 다음세대 신앙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아울러 학생들이 신앙 성장의 가장 큰 촉매로 꼽은 '수련회'(42%)와 '찬양'(39%) 사역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동시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교사 및 프로그램 영역의 변화/보완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만족을 느끼는 핵심 요인이 친구와 교역자, 찬양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현장 교사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친교 환경을 구축할 때 비로소 다음세대 사역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수련회와 관련 연초부터 학부모들을 설득해서 학생들이 공부와 학원을 뒤로하고 수련회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